

# 가계대출 옥죄기, 한계가구 어찌나

(빛에 연명해 생활하는 가구)

### 올해부터 가계대출 심사 '간간'... 아파트 잔금대출도 분할상환 원칙 적용

올해부터 은행은 물론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가계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금융기관의 대출문턱 높이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빛에 연명해 생활하는 한계가구는 전방위적인 대출 옥죄기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

최근 가팔라진 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만기 도래한 대출 돌려막기가 힘들어지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취약계층의 다중채무자부터 부실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뇌관을 터뜨릴 도화선이 될 수 있는 한계가구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들은 가계

대출 급증에 따른 부실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올해 은행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대로, 지난해 10% 안팎을 기록했던 가계대출 증가율보다 4%포인트 가량 낮춰잡았다. 은행들도 이미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판단해 대출자선 증가보다는 '리스크관리'로 입장을 선화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들은 지난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하게 아파트 잔금대출에 대해 '여성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파트 잔금대출도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며, 신규 취급한 잔금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산출하고 표준 DSR이 80%를 초과하면 사후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리스크 관리 등에 활용한다.

농·수·신흥과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오는 3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맞춤형 여성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소득 증빙이 더욱 강화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를 넘는 주택대출은 분할상환을 해야 한다.

금융권의 전방위적인 대출 죄기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약한 고리'는 고령층,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한계가구들이다.

한계가구는 금융부채가 금융자산보다 많고, 원리금 상환액이 처분가능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가구를 말한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한계가구 비중이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12.5%에서 13.3%로 높아지고, 이들의 금융부채 비중도 31.8%로 2.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올해 본격적인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조선, 해운, 철강, 건설, 석유화학 등 5대 취약업종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이 타 업종으로 확대돼 대규모 실업 사태가 가시화될 경우 소득만으로 빛을 갚기가 어려운 한계가구는 빠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총량이나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계가구의 부실화 가능성"이라며 "제2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금리를 주고 사업자금이나 생계자금 대출을 받은 취약계층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안재용 기자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2일까지 2017년 새해 첫 Lovely 名作 SALE를 진행한다.

## 롯데백 전주점, 'Lovely 名作 SALE'

### 22일까지 진행

롯데백화점 전주점은 2일부터 22일까지 2017년 새해 첫 Lovely 名作 SALE를 진행한다.

정유년 새해 첫 SALE를 맞아 고객들에게 닭모양의 저금통을 나눠드리는데 이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SALE 행사에 돌입했다.

우선 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는 '럭키 스페셜 기프트' 행사는 잡화, 생활가전, 식품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 세트상품을 쇼핑백에 담아 1만원/3만원/5만원에 일별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5일까지는 인기아이템을 최대 70%~40%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4일간의 '신년 대박 상품전'을 진행한다.

/안재용 기자

## "흔들림 없는 자세로 경제활성화에 앞장서겠다"

### 현준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장, 새해 각오 밝혀

중소기업중앙회 현준 전북본부장(사진)의 새해 각오가 비장하다.

지난해 도내 경제가 내수와 수출 동반부진, 산업구조개편, 정치적 혼란 가중 등 유례없는 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현 본부장은 "전북 중소기업인들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 합심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정유년 포부를 밝혔다.

전북본부는 지난해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도내 중소기업들의 애로와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송하진 지사와

전북중기청, 전북도청과 간담회 등을 개최했으며, 전북지역 '중소상공인 직능단체'를 조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했다.

또한 협동조합 및 각 경제단체들과 긴밀히 연계해 '민생법안 통과 서명운동'과 같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섰고 소비부진을 극복하고자 '전통시장 이용촉진 캠페인' 등에 적극 참여했다.

현 본부장은 "지금 우리는 유례를 찾기 힘든 대격변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올해 한국 경제가 3년 연속 2%대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들려오는 가



운데 경제.정치.사회적으로 불어 닥칠 변화는 쉽사리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의 흔들림 속에 자칫 중심을 잃고 중소기업계가 나아가야 할 길을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며 "이제는 현실을 딛고 있는 한 발을 더욱 견고히 하고 다른 한 발은 미래를 향해 내딛는 전환기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현 본부장은 "올해를 전망하는 키워드로 '살아 돌아오길 기약하

지 않고 결사의 각오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는 뜻을 지닌 파부침주(破釜沈舟)로 꼽았다"면서 "현실의 고난과 내일에 대한 막대한 불안감이 제아무리 크더라도 공동체의 힘과 지혜를 모아 난국을 헤쳐 나간다면 오늘의 위기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 본부장은 "공정한 시장경제, 합리적 금융.노동 자원배분, 중소기업 거버넌스 확립을 핵심 의제로 삼아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정부.국회에 제안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외식·통신비 오를때 가계부담 느껴

농축산물 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자들의 가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추가격이 50% 상승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 기여도는 0.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축산물 가격 변화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파악

키 위해 농업관측본부 소비자가구 패널 62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가격 상승시 모든 부류에서 가계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외식비 및 통신요금에 비해 농축산물의 가계 부담을 상대적으로 적게 느끼는 것

로 나타났다. 특히 농축산물 가격 변화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기여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배추 가격이 50% 상승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에 대한 기여도는 0.06%로 조사됐다. 이는 커피의 기여도인 0.24%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를 2016년 3분기 기준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액을 275만원으로 기준할 때 배추의 월 지출액은 3300원이다.

/안재용 기자

## 박명식 LX공사 사장 취임

한국국토정보공사 박명식 사장의 취임과 함께 정유년 새해를 열었다.

LX공사는 2일 본사 대강당에서 임직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임 박명식 사장의 취임식과 함께 시무식을 개최했다.

박명식 사장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공사에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전북우정청, 새해맞이 가두 퍼레이드 펼쳐

전북우정청은 2일 전주시 서원으로 일대에서 전주우체국 집배원차 100대 등 직원 250여명이 참여해 정유년 새해 국가발전과 전북지역사회 주요행사의 성공 기원을 위한 가두 퍼레이드를 펼쳤다.

이날 퍼레이드에서는 국정시책인 '경제부흥·국민행복, 우체국이 함께 합니다'와 전북도 시책인 '한국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 그리고 '2017 FIFA U-20 월드컵대회 성공개최',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대회

성공개최', '2023 세계잡비대회 유치기원' 등 2017년 주요행사를 응원하는 현수막, 피켓, 깃발을 흔들며 전북도청 사거리 등 서원으로 일대에서 1시간 정도 진행했다.

김병수 청장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해 '라이브 POST' 운동을 기치로 우체국이 지역사회의 소통과 경제 그리고 복지플랫폼이 돼 지역발전엔 큰 '힘'이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 전북은행-전북신보, 소상공인 금융지원 '맞손'

### 5억원 특별출연

전북은행은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지난 30일 전북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역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의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양시간 합의를 통한 지역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진행됐으며, 전북은행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전북신용보증재단은 이를 기반으로 지역 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규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전북은행은 2015년도에도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전북신용보증재단에 5억원을 출연해 지역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소매전문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이번 특별출연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지역내 자급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자금지원이 이뤄져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조를 통해 지역민과 중소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나눔으로 행복건설, 사랑으로 미래건설"

"2017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사랑받는 창조적인 건설산업을 이룩하는데 초석이 되겠습니다.**

"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제26대 회장단 및 제5대 대표회원 "

회장 정대영	윤리위원 권남진	윤리위원 김승희	윤리위원 김승수	윤리위원 박형식	윤리위원 송재철	윤리위원 송화중	윤리위원 신현용	윤리위원 이등근	윤리위원 이승원	윤리위원 이정기	윤리위원 조병두	윤리위원 최산성	윤리위원 최현호	윤리위원 강신길	윤리위원 김호성	윤리위원 김성민	윤리위원 김영량	윤리위원 김종원	윤리위원 나춘균	윤리위원 라규한	윤리위원 문길천	윤리위원 박종완	윤리위원 배문식	윤리위원 배진석	윤리위원 신상문	대표회원 강동범	대표회원 강성희	대표회원 강지원	대표회원 강지영	대표회원 고두영	대표회원 김광현	대표회원 김대수	대표회원 김만일	대표회원 김민숙	대표회원 김미정	대표회원 김민석	대표회원 김선화	대표회원 김성광	대표회원 김양목	대표회원 김양희	대표회원 김영욱	대표회원 김영우	대표회원 김용태	대표회원 김재호	대표회원 김주영	대표회원 김창선	대표회원 김창욱	대표회원 김철빈	대표회원 김철삼	대표회원 김형주	대표회원 박정순	대표회원 박찬민	대표회원 박혜경	대표회원 송영석	대표회원 안대순	대표회원 안석문	대표회원 안장환	대표회원 유명숙	대표회원 윤진오	대표회원 이호	대표회원 이기열	대표회원 이용만	대표회원 이우재	대표회원 이장준	대표회원 이장춘	대표회원 임형우	대표회원 조희곤	대표회원 지명철	대표회원 진동선	대표회원 최경호	대표회원 최홍호	대표회원 최종환	대표회원 한용진	대표회원 한지훈	대표회원 황제준	대표회원 황태봉	대표회원 황호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준:성명가나다순)

**CAK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